안산 시승격 30주년
1000년의 숨 30년의 땀 100년의 꿈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NO. 431 / ANSAN CITY NEWSPAPER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 blog.naver.com/cityansan
ⓕ facebook.com/ansancity3
ⓣ twitter.com/ansancityhall
ⓢ story.kakao.com/ch/ansancity

발행일 2016년 11월 23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브라보안산 https://bravoansan.net

2016. 11. 23

할머니들의 웃음바다…
"추위 따위, 함께 하면 아무것도 아냐"

어느덧 형형색색 산천을 물들였던 단풍마저 조금씩 사그라진다. 여기 저기 김장을 담그는 손길들이 분주하고, 옷장 속 파묻혔던 겨울옷을 꺼내 손질한다. 다가올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시간이다.

2

안산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준비 '박차'

축구로 하나 되는 안산…"우리는 바르셀로나를 꿈꾼다

"울산현대미포조선 메인 스폰서 계약, 30억 후원 및 선수단 구성 지원

안산시민이 주인인 프로 스포츠구단이 생긴다. 종목은 전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인 축구. 지금 창단 준비가 한창으로 내년 봄 시즌, 정식 출범 예정이다.

가칭 안산시민프로축구단. 기존에 안산이라는 지명이 들어가던 지역 연고 스포츠구단과는 다르다. 실제 축구단의 주인이 안산시민이며, 축구단 전체 운영도 안산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안산시 역사상 최초의 시민구단이 탄생하는 것이다.

안산의 프로축구 역사는 할렐루야 축구단(2012~13년), 안산무궁화프로축구단(2013~16년)과 함께 했다.

특히, 올해는 K리그(챌린저)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막강한 저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안산시-경찰대학-한국프로축구연맹 3자 협약으로 운영되는 지역 연고구단이다 보니 '시민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마침, 경찰대학이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며 연고지가 바뀌었다.

5

안산스마트허브 '변화' 산단진입 4차로 신설

반월 · 시화산단이 변하고 있다. 국가산업발전이라는 절대적 과제를 위해 만들어진 지 40년만의 일이다. 그동안 반월산단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라는 이유 때문에 안산시가 직접 나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6

안산시 투자설명회 200여 명 참석 '성황'

시는 지난 11월 7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내 · 외 기업인과 개인 투자자 등 200여명을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투자설명회는 반월 · 시화 국가산업단지, 시화MTV 등의 산업기반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등 안산시의 투자환경과 투자유망지역에 대한 집중 홍보가 이루어졌다.

7

특별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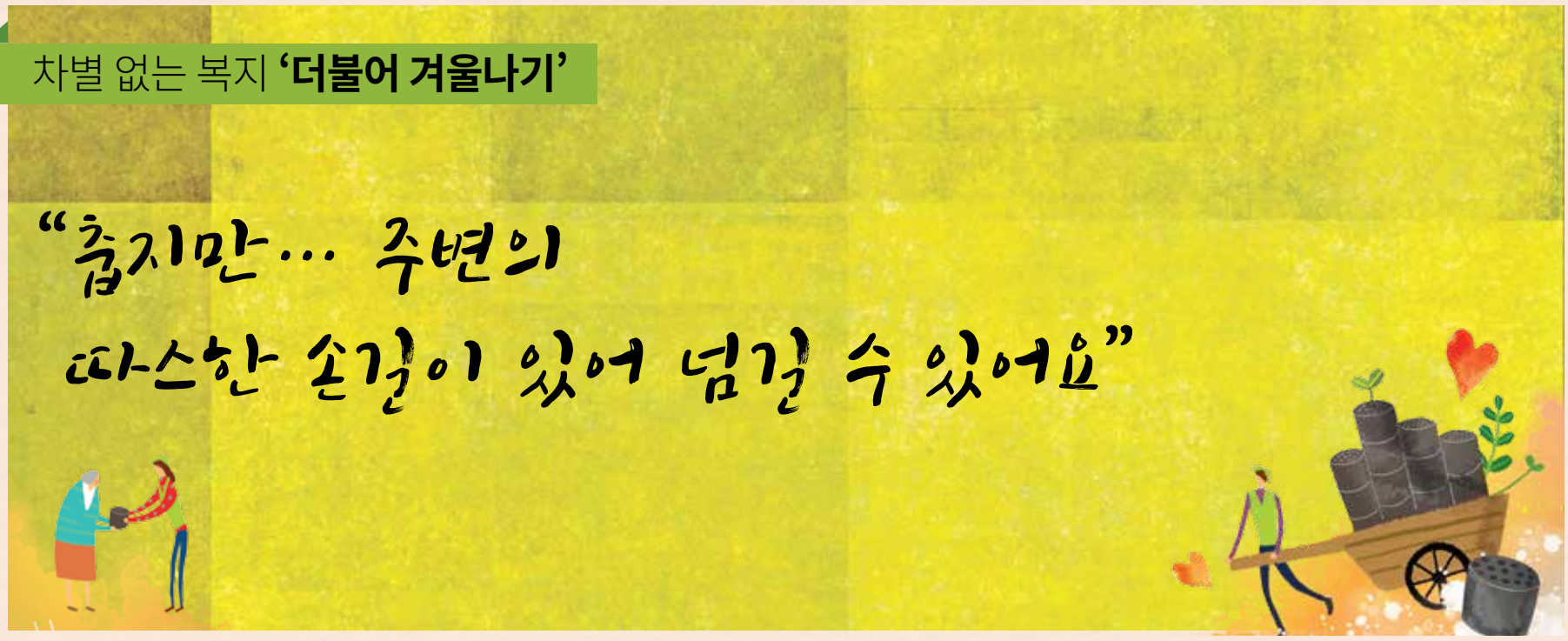
숲의 도시, 안산에 거는 기대

지난 30년간 산업도시로 빠르게 성장해온 안산시가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곧 산업과 자연, 문명과 숲의 공존과 화해로 들어섰음을 대내외로 공언하고 실천하는 일인 것이다.

성종상 조경가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교수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장

8

차별 없는 복지 **‘더불어 겨울나기’**



무료로 이용하는 건강사랑방 **‘인기’** 찾아가는 독거노인 서비스도 **‘만족’**

어느덧 형형색색 산천을 물들였던 단풍이 조금씩 사그라진다.
여기 저기 김장을 담그는 손길들이 분주하고, 옷장 속 파묻혔던 겨울옷을 꺼내 손질한다.
다가올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넉넉하지 못한 어르신들,
특히 홀로 혹한을 이겨내야 할 ‘독거노인’들은 곧 불어올 찬바람이 두렵다.
갈라진 문틈도, 차가운 방바닥도 싫지만 ‘함께 웃고 떠들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견디기 힘들다.
이럴 때, 주변의 따스한 손길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 크기는 상관없다. 맞잡아 주는 손으로 전달되는 36.5도의 체온이면 충분하다. 더불어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
안산시 복지문화국은 매년 ‘동절기 특별종합대책 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 기업이나 단체의 지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단면들을 소개한다.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문의 031-220-7900
- 기부상담(나눔콜센터) 080-890-1212

건강과 사랑

“함께 모여 박수치며 웃다보면 추위를 잊지요”

11월 17일 오후, 기사촌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선부종합사회복지관 건강사랑방(선부2동 1058-31)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할머니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실버요가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던 사랑방엔 35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강사와 함께 에너지와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간단한 손동작에서 팔과 어깨, 무릎으로 이어지는 동작을 따라해 보지만 몸이 맘처럼 되지 않아 헤매기 일쑤다. 그런 모습에 강사도 할머니들도 박장대소한다.

사랑방을 자주 찾는다는 장봉순 할머니(68세)는 “친구 소개로 왔는데 정말 편안하고 즐겁다.” 말했고, 옆의 정오순 할머니(83세)는 “경로당은 회비도 내야하고 이러저러한 차별이 생기는데 여기는 공평하고 사랑방처럼 마음이 편안해 매일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어요. 마음 편한 게 최곱니다.”라고 했다.

‘건강사랑방’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서로를 의지하며, 다양한 건강 상담과 강좌 등을 통해 건강을 실천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주치의’ 진료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인주치의로 등록을 하면 나만의 주치의가 생기며, 기초 건강검진은 물론 만성질환자에 의료 · 진료비와 약값 등을 지원해준다.

건강사랑방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펴 병원으로 모시고 가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의사나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를 지원한다.

현재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단원구노인복지관,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3곳이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5월에는 안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사회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역사회 주도형 노인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치의, 건강강좌…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다양

3월 18일 개소한 선부종합사회복지관 건강사랑방은 현재 124명의 어르신이 등록, 일평균 35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주치의를 등록한 어르신도 47명에 이른다. 이곳에선 어르신의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웃음치료 · 실버요가 · 시니어로빅 · 종이접기 · 구연동화 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활용 강좌도 열린다. 매주 목요일에는 ‘찬찬찬’ 예비사회적협동조합에서 건강밥상으로 저녁을 준비하기도 하며,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황해영 관리사(왼쪽)와 정정례 할머니가 두손을 잡고 있다.

상록구 이동에서 만난 이석범, 김정래 어르신과 이혜숙 통합사례관리사(왼쪽부터)

에는 단원보건소 연계 프로그램으로 방문 건강체크, 결핵예방, 치매진단 등 건강강좌가 진행된다. 또한 월 1회 봉사단이 찾아와 손맛사지와 얼굴팩을 통해 혈액순환과 피부관리를 도와주기도 한다. 이외에도 건강음악회 등 문화공연 관람과 힐링여행 등 건강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선부종합사회복지관 황인득 관장은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적은 선부2,3동을 아우르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건강사랑방을 거점화하고자 한다."며 "인근 선부성당의 무료급식소와도 연계돼 어르신들의 점심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했다. 이어"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사회에 좋은 모델이 되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과 전화

"찾아가 대화하며 손을 맞잡을 때 행복감 느껴요"

다가오는 겨울이 유난히 혹독하게 느껴지는 이들이 있다. 바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다. 이를 위해 안산시가 나섰다. 안산시 사회복지과의 지원 · 위탁을 받은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이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집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이하 관리사)'를 파견해 주 1회 방문과 주 2회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관리사는 안전 확인 외에도 보건 · 복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생활 교육이나 후원 물품 전달, 식사 배달도 연계해 담당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정정례(82세, 와동) 할머니는 "두부, 콩나물, 빵까지 안 가져 다 주는 게 없어요. 올 겨울을 또 어떻게 나나 걱정했는데 우리 관리사가 전기매트까지 가져다 줬어요. 이제 마음 놓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어요. 어찌나 고맙던지, 우리 딸 삼고 싶다니까요."라며 "관리사 오는 날만 기다리지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관리사한테 털어 놓고 나면 속이 다 풀어져요. 잔소리도 반가운 사람"이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관리사로 활동하고 있는 황해영(49세, 고잔동) 씨는 "어르신 댁에 방문하면 먼저 건강상태를 확인해요. 식사를 잘 챙겨 드시는지,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핀 곳은 없는지 살펴봐요. 또 잘 기억에 뒀다가 후원물품이 나오면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전해 드리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 드리는 일이에요. 이야기 끝에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사람과 사람이 공감하고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라고 전했다.

연탄과 김치

"우린 누구에게든 그만큼 뜨거웠던 적이 있었던가"

매년 연탄과 도시락과 김치로 주변 이웃들을 돕고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경기지사(이하 가스공사)의 선행들이 올 겨울에도 계속된다. 가스공사 내 그린누리봉사단이 바로 그곳으로 이미 연탄을 배달할 가정에 답사도 다녀왔다. 특히 올해는 봉사단 자체 활동 외 두 번의 협력 연탄봉사가 더 계획되어 있다. 보통 한 집 당 500장 정도를, 여러 봉사단체들이 나눠 배달한다. 올해는 12월 초로 예정돼있다.

봉사단은 연탄봉사뿐만 아니라 매주 도시락을 배달하기도 하며 얼마 전에는 김장봉사도 다녀왔다.

봉사단 이정택 단장은 "봉사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탄배달처럼 강도가 높은 노동력이 필요한 일들은 되도록 여러 번 나누거나 짧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어느덧 10년의 역사를 넘긴 봉사단에 대해 가스공사 허성태 지사장은 "주간에는 회사 차원에서 업무를 조율해 봉사하며, 주말에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며 "따뜻한 손길이 부족한 불우이웃들에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가스분야의 전문기술력을 발휘하여 가스설비 개보수 봉사 등 가스공사만의 봉사로써 우리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건강사랑방에서 만난 장봉순(왼쪽), 정오순 할머니가 밝게 웃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그린누리봉사단원들이 연탄봉사를 하고 있다.

☎ 문의 : 안산시복지정책과(031-481-2832) / 안산시 사회복지과(031-481-3351) / 선부종합사회복지관 건강사랑방(031-509-5522) / 초지종합사회복지관(031-410-2151)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건강사랑방(031-407-9506) / 단원구노인복지관 건강사랑방(031-489-5023)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031-401-2208)

• 공동취재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 유가희 명예기자_425170@naver.com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②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 · 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이야기를 사진에 담다"

청년큐브를 통해 작업실을 마련한 김주용 대표(35)를 찾았다. 예대캠프에 자리한 '김주용 스튜디오'는 조명과 소품, 컴퓨터 등 다양한 집기들이 놓여 있어 스튜디오로 쓰기엔 비좁아보였다. 그러나 김 대표는 "두어 평 남짓한 공간이라도 이런 작업실이 있어 감사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진은 사물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도구

2001년 숭실대에 입학해 교회음악과를 전공한 김 대표는 2008년에 앨범을 내며 CCM(현대기독교음악) 가수로 활동했다. 그러나 막상 가수로서 무대에 서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후 '잘 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대학시절, 사진동아리에서의 배움과 즐거웠던 시간에 집중했다.

"사진은 참 신기해요. 같은 피사체가 담긴 사진도 어떤 구도로 찍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으로 보입니다. 같은 장소라도 바라보는 이의 시각 차이와 시간의 흐름 등 여건에 따라 다른 풍경이 담기는 것이죠. 비슷한 풍경인 것 같지만 똑같은 것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담은 '세상에 하나뿐인 사진'의 매력에 빠져있었어요. 사진은 사물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도구입니다."라고 했다.

서른, 잔치는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직업으로 사진을 선택한 김 대표는 현장에서 경력을 쌓아가던 중,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되는 나이인 서른에 2011학번으로 서울예대의 문을 두드렸다. 다시 신입생이 되었던 그 해, 그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선택도 했다. 책임감이 막중하던 시기였지만 그는 "사진을 전공한 후 기본이 탄탄해졌으며, 사진에 접근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의 사진작업은 '나'에서 '고객'에게로 옮겨갔다. 직업으로서의 사진은 '만남'이라는 그는, "고객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고 있지만 '나'의 재능을 상대에게 콘텐츠화해서 전달하는 일"이라며 그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낯설지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와 조우하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늘 들떠있다."고도 했다.

취미는 직업으로, 직업은 다시 종교 생활로 이어지다

"결혼 후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가장이었던 저에게 취업 문턱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청년큐브 창업 인큐베이팅 소식을 접하게 됐고 뒤늦게 신청을 했는데 입주기회가 주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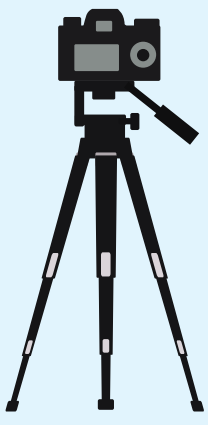
광고사진을 전공한 그는 입주 초기부터 안산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광고 아이템을 찾고 있다. 현재는 음식점 등 제품사진과 웨딩 · 베이비사진, 졸업앨범을 제작하고 있으며, 셀프웨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셀프웨딩이란 둘만의 특별한 웨딩사진을 원하는 고객에게 그들만의 추억과 이야기가 있는 앨범을 제작해 주는 것으로, 의뢰인의 추억에 따라 콘셉트를 정하고, 시간 · 장소 · 의상 · 소품 등을 협의한 후 6~7시간에 걸쳐 촬영한다. 이어 800~1000컷 중에서 고객이 선택한 사진을 보정해서 앨범으로 만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한두 달 이상 걸리는 작업이다.

"경제적 부담이 없는 작업실이 있어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있고, 예대캠프 내 디자인팀에게 앨범 작업을 맡기는 등 서로 협력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김주용 대표. 교회 전도사이기도 한 그는 '즐겁게 찬양하며 종교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현재를 즐기고 있다.

김주용 스튜디오

☏ 문의 : 김주용 스튜디오
blog.naver.com/ssccm0486 [010-6433-0125]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준비 '박차'

축구로 하나 되는 안산… "우리는 바르셀로나를 꿈꾼다"

울산현대미포조선 메인 스폰서 계약, 30억 후원 및 선수단 구성 지원

안산시민이 주인인 프로 스포츠구단이 생긴다.
종목은 전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인 축구.
지금 창단 준비가 한창으로 내년 봄 시즌,
정식 출범 예정이다. 가칭 안산시민프로축구단.
기존에 안산이라는 지명이 들어가던
지역 연고 스포츠구단과는 다르다.
실제 축구단의 주인이 안산시민이며,
축구단 전체 운영도 안산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안산시 역사상 최초의 시민구단이 탄생하는 것이다.

구단의 주인은 안산시민

안산의 프로축구 역사는 할렐루야 축구단(2012~13년), 안산무궁화프로축구단(2013~16년)과 함께 했다. 특히, 올해는 K리그(챌린저)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막강한 저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안산시-경찰대학-한국프로축구연맹 3자 협약으로 운영되는 지역 연고구단이다 보니 '시민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마침, 경찰대학이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며 연고지가 바뀌었고, 안산은 별도의 시민구단을 준비했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안산시의회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창단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김호석 전 안산시생활체육연합회장)도 꾸려 여러 노력들을 전개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8일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가 시의회에서 의결됐으며, 11월 8일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K리그 정회원 가입' 승인을 얻어냈다.

이에 대해 전덕주 안산시 체육진흥과장은 "안산은 축구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도시로 공식 클럽만 100개가 넘고 동호인 수도 3,200명에 달한다."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유자산을 마련하고, 프로스포츠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며 또 안산에 대한 정주의식 고취 및 시민화합을 이루기 위해 프로축구단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106개 클럽, 3200명 동호인

안산시장이 구단주가 되는 안산시민프로축구단은 사단법인의 형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 단체 승인을 받아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창단을 준비하며 접촉했던 '울산현대미포조선돌고래축구단(현재 내셔널리그 소속, 이하 돌고래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영입과 함께 3년 30억 원의 후원을 받는 메인 스폰서(main sponsor) 계약도 체결했다. 연간 40억 규모의 구단에서 매해 10억의 후원금은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진행상황도 순조롭다. 가장 중요한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올해 안산무궁화축구단을 챌린저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던 이흥실 감독(55세)의 영입이 공식 발표됐다.

선수단 구성에 대해서도 여러 단계의 복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덕주 과장은 "돌고래축구단 선수 중 상위 14명과 개별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대학리그 신인들을 대상으로 공개테스트도 예정돼 있다. 또한 1부 리그에서 조건이 맞지 않은 선수의 영입에 대해서도 여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단명과 엠블럼 공개모집

또한 현재 안산시는 2017년 챌린저리그 참가를 목표로 현재 구단명과 엠블럼(emblem, 문장) 등에 대한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창단 준비는 2017년 1월 중에 마친 후 2월말에 창단식을 가질 계획이다.

전덕주 과장은 "우리 축구단 소속 선수들이 관내 조기축구회나 유소년축구단을 직접 관리하며 기술을 지도하는 등 선수와 시민, 팬이 모두 하나가 되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FC바르셀로나나 맨체스터유나이티드처럼 시민이 주인 되는 명문 구단으로 만들어 건전한 여가문화와 시민화합을 이루고 나아가 안산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 문의 : 안산시체육진흥과(031-481-2992)

안산스마트허브, 변화의 물결 **“재생하고 혁신하고”**

산단 진입 4차로 신설 … 출퇴근 정체 “숨통 트인다”

원곡역·원시역(가칭) 주변에 임대기숙사·문화센터 건립 예정

안산스마트허브(이하 반월산단)가 변하고 있다.
국가산업발전이라는 절대적 과제를 위해 만들어진 지 40년만의 일이다. 그동안 반월산단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라는 이유 때문에 안산시가 직접 나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산업단지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비용은 안산시가 지불하면서도, 길을 넓히거나 건물을 짓는 등의 개발행위는 안산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제 변화가 가능해졌고 곧 성과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재생(再生)사업으로 ‘다시 살아나’고, 혁신(革新)사업으로 ‘완전히 바뀌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가능’

반월산단은 준공된 지 29년이 지나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으며 전체 산업단지 중 지원시설이 2.7%에 머물러 있어, 변화되는 산업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 유지 · 보수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 예산을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해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를 선정했고 반월산단이 그곳에 포함됐다. 그 결과 산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 도로 및 보도 정비, 주차장 및 공원 조성 등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 안산시는 중앙대로의 신길지하차도와 산단을 잇는 진입도로를 새로 개설해 성곡로와 산단로의 교통량을 분산 ·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단로와 동산로, 별망로 등 재생사업지구 내 도로와 보도도 정비하고, 공공자전거인 ‘페달로’ 주차장도 신설할 예정이다.

일반 차량용 주차장도 늘어날 전망이다. 가능한 시유지와 공원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외 소공원과 산책로 조성도 포함됐다.

공공주택·문화센터 건립… 근로 복지환경 ‘개선’

산단 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여 동안 진행된 설문조사를 토대로 공공 임대주택, 문화 · 체육시설이 포함된 복지센터 건립 등의 계획이 마련됐다. 위치는 2018년 2월 개통 예정인 소사 · 원시선의 (가칭)원곡역과 원시역 주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시공사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사업(경기도 따복하우스) 지역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정도인 주거공간을 공급, 산단에 근무하는 미혼 청년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공공주도형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비전이 높은 핵심 산업과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업경영 개선효과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전광식 안산시 산업정책과 재생혁신계장은 “산단 내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이나 상업시설, 기숙사 등을 한 곳에 마련,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혁신사업들이 반월산단 재도약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록수보건소, 모기 유충 구제 활동 실시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월동 모기 방역

상록수보건소는 관내 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월동 모기 방역을 일제히 실시한다.

모기 방역은 모기 유충이 성충으로 부화되기 전인 유충 단계에서 제거하는 것이 모기 방제에 매우 효과적이며, 겨울철 월동 모기 방제 및 유충 구제 활동은 사전에 여름철 모기 개체수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

상록수보건소는 3개 반 5명으로 방역반을 구성해, 겨울철 모기유충 서식이 가능한 관내 공원 공중화장실 전체를 대상으로 유충구제, 화장실 주변 성충 구제 및 살균소독 등을 한다.

•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 031-481-5941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개최

제도 및 정책개선 논의… 경기도 및 정부에 건의

시는 지난 11월 8일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시화호조력발전소 조력문화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먼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31개 시 · 군 자치연정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경기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안산시를 비롯해 참여한 시 · 군에서 제안한 '도비 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 건의',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도비지원', '지방공사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면제', '시 · 군 지방연구원 설립 · 운영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등 총 9건에 대해 논의 결과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 안산시 기획법무과 031-481-2803

안산시 투자설명회, 200여 명 참석 '성황'

"다양한 발전가능성 갖춘 투자 최적지"

서울 삼성동에서 진행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안산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7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내외 기업인과 개인 투자자 등 200여 명을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투자설명회는 반월 · 시화 국가산업단지, 시화MTV 등의 산업기반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등 안산시의 투자환경과 투자유망지역에 대한 집중 홍보가 이루어졌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한 대부도에 대한 장기 발전 전략 등 환황해권 비즈니스 · 해양관광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향후 수도권 해양관광의 중심지가 될 방아머리 마리나항과 지하철 4호선, 수인선, 소사원시선 등 다양한 전철노선과 인천발 KTX의 환승이 가능한 초지역세권을 비롯해, 사동 89블록, 초지동 종합의료시설, 시화MTV 반달섬, 대부북동 상업용지 등 투자유망지역이 소개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투자 최적지로 지리적, 산업적, 교육적,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앞으로 시의 발전과 투자자들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해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산시 마이스산업과 031-481-3431

상록구 일동, 주민 300명 모여 원탁회의의

"살고 싶은 동네 만들어요" 주민들이 세우는 마을계획

점섬운동장에서 진행된 '300인 원탁회의'에 참석한 일동 주민들의 모습

마을의 자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주도로 마을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까지 수립하는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성호공원과 안산식물원, 안산대학교가 위치한 곳으로 알려진 상록구 일동은 대부분 빌라와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덕분에 골목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개됐고, 이는 육아, 미디어, 생태, 축제 등 지역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졌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공모사업이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저력도 갖고 있다.

이러한 일동 주민들의 잠재력과 마을의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모여 '일동마을주민 300인 원탁회의'를 성사시켰다. 지난 12일 토요일, 점섬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참여도 많았다. 호동초등학교 채지호 학생은 "아름다운 식물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을 보며 실망했다.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또한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과 오래된 골목길의 안전 문제, 대중교통, 생태, 공동체 육아, 마을 내 사회적 경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특히 마을 공감과제로 선정된 분과별 과제는 중요도를 기준으로 전체투표가 진행되기도 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단과 전문가가 함께 마을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원탁회의는 살고 싶은 마을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설렘 · 기대와 함께 앞으로의 실천을 다짐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지난 3월부터 일동 마을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설명회와 마을조사, 분과별 워크숍 등의 지원을 통해 마을계획실천단의 활동을 돕고 있다.

☎ 문의 :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031-409-7960)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숲의 도시 안산에 거는 기대

성종상 조경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교수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장

오늘날 식물과 동물은 뚜렷이 구별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동물이 식물로부터 진화되었다는 사실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동물적 존재로서 인간은 식물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식물이 인간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식물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식물이 지닌 가장 큰 효용가치는 먹을거리와 생존환경의 제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생존환경 관점에서 나무나 숲을 대하는 서구인의 태도는 다분히 이율배반적인 듯하다. 숲의 개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구 도시사는 숲에서 나무를 베어 내거나 불 지르면서 확장되었다. 숲을 제거하고 난 빈터는 마을이 들어서거나 농토로 이용되었다. 숲과 함께 올빼미가 떠나 버리자 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천적이 사라진 데다 마을이나 농토에는 쥐가 서식하기에 적절한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서구 문명사가 숲이나 나무를 일방적으로 훼손해 온 것만도 아니다. 숲이나 나무를 숭배하는 일은 동양에서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신성이나 영적 세계와 닿아있는 초자연적 대상 혹은 그 대리물로 나무나 숲을 바라보는 시각은 동서양 거의 전 고대종교에서 쉽게 발견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시되었던 것 중 하나는 우주목으로서 나무인데, 대체로 거대한 나무는 물질세계와 비물질세계를 넘어 전 우주를 지배하는 중심축으로 간주되었다. 내용과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리에게도 나무는 각별한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 환웅이 신단수 밑에 강림한 것이나 경주 김씨 시조가 계림이라는 숲에서 탄생하였다고 하는 것 등은 신화 속에 들어 있는 나무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이제는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전국의 정자목이나 마을숲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네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음을 반증해주는 실례이기도 하다.

> “도시에서 숲을 되살려내는 일은 곧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의미”

이 같은 나무가 가진 상징적 의미와 가치는 어렵고 힘든 현대화의 여정 속에서 꿈과 영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현대 한국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 도시에 숲을 되살려내는 일은 곧 메말라만 가는 우리 일상에서 꿈이나 영성으로 대변되는 비물적 가치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우리들에게 행복을 되찾게 해주는 유효적절한 처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도시 속의 물적 환경이 거주민의 건강에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사실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인간의 건강과 자연환경 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건강증진 필수요소로서 자연환경에 주목하려는 것으로, 최근 조경, 도시, 건축, 환경, 보건, 사회복지, 체육, 의학, 간호학 등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숲과 함께 보낼수록 우리의 정서나 신체적 건강이 증진됨은 물론 다른 이들과의 유대감도 더 좋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Hartig 2008)는 사실이다. 단지 내에 잘 가꾼 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 그 단지 내 가정에서의 가정폭력이 줄어든다는 연구(Sulivan and Kuo 1996)나 잘 조경된 단지는 범죄행위가 적다는 연구(Donhovan et al. 2012) 등은 그러한 연구의 일례이다. 그러고 보면 양호한 자연요소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기에 좋거나 생태적 다양성을 제고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정서적/사회적 건강성에까지 작용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살기 좋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건강 및 행복한 삶에의 필수요소임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산업화를 거의 마무리한 현 시점에서 한국의 대표적 산업도시인 안산이 숲의 도시로 재탄생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크다. 산업화 과정 자체가 자연, 곧 나무와 숲을 없애면서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도시에서 숲을 되살려내는 일은 곧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의미한다. 지난 30년간 산업도시로 빠르게 성장해온 안산시가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곧 산업과 자연, 문명과 숲의 공존과 화해로 들어섰음을 대내외로 공언하고 실천하는 일인 것이다. 한 때는 한국 산업화의 최일선 현장이자 전시장으로서 환경오염과 공해의 주역으로 간주되기도 했던 안산시가 이렇듯 풍부한 문명적 의미를 함축한 숲을 되살려냄으로써 산업도시를 넘어 인간 중심의 도시로서 인문학적 문화지평을 새롭게 열어나갈 것이라 믿는다.

필자는 숲의 도시 안산시의 미래 모습이 단순히 나무로만 채워진 숲 그 이상이 되길 바란다. 물론 세계최초의 시유림으로 알려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도시숲처럼 안산시에도 훌륭한 숲이 시의 대표 명물로 탄생되면 좋겠다.

하지만 필자가 기대하는 것은 생태적 존재로서 나무들의 집합체라는 물질적 공간을 넘어 생명공동체적 문화의 숲으로 진화해 나가는 모습이다. 새와 나비들이 날아와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는 건강한 숲이면서 그 주위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여 교류하는 온 생명체 간의 나눔의 장이 되길 바라는 것이다. 푸르름은 생명체적 공동체의 바탕이다. 건강한 환경에 건강한 문화가 꽃피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숲으로 이루어진 건강한 환경은 자유로운 만남과 나눔, 그리고 소통을 통해 문화 창달의 생산기지이자 향유의 전시장으로 적격이다.

그리하여 소로우나 괴테같은 명징한 문필가, 루소나 퇴계 이황과 같은 대철학자, 그리고 모네나 김환기 혹은 허난설헌 같은 뛰어난 예술가가 멀지 않아 안산 도시 숲에서 탄생되길 고대해 본다.

철도차량기지를 공원으로 개조한 독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있는 세계 최초의 도시림

강릉 허난설헌 생가 뒤의 송림

‘세월호’ 故정차웅 군 ‘명예로운 죽음’

의사자 인정… “본인 조끼 벗어줘 친구 구한 모범 기억해야”

(義死者)

안산시청을 방문한 故정차웅군의 부모님

전대미문의 참사 ‘세월호’. 그 수많은 사망자 중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된 故정차웅 군. 더구나 정 군은 ‘자신이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 후 자신은 죽은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며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2년 6개월여의 시간이 흐른 지난 10월 27일, 정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고인이 된 정차웅 군을 의사자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문서를 통해 밝힌 정 군의 의사자 지정 사유는 “2014. 4. 16. 08:58경,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던 중 승선한 세월호 선박이 침몰할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친구를 위해 자신이 입었던 조끼를 벗어주고 본인은 조끼를 입지 않은 채 해상에서 발견됨”이라고 적혀 있다.

정차웅 군의 의로운 행동은 중앙일간지 A일보 B기자의 취재를 통해 알려졌다. 참사 당시 진도 현장에서 취재하던 B기자는 차웅 군의 친구들로부터 “선실 구석에 있던 차웅이가 탈출하다가 돌연 자신의 구조조끼를 벗어 조끼가 없는 사람에게 주고 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등의 이야기를 여러번 들었다는 것이다.

정 군의 평소 선행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차웅 군의 검도 사범이었던 C씨는 문서를 통해 “말로 글로써 멋진 차웅이를 다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몇 줄 안 되는 이야기를 쓰면서도 계속 눈물이 흐르네요. 항상 보고 싶고 그리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멋진 차웅이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멋진 정말 멋진 제자를 둔 차웅이의 영원한 사부 김OO입니다.”라며 고인의 의로운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토대로 의사자 지정 탄원이 들어갔고 이후 여러 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으로 인정된 것.

이에 대해 정차웅 군의 어머니 김연실 씨는 “귀하고 소중한 아이를 어이없이 잃었으나 그 아이의 착한 행동을 그냥 덮어 버리기에 이 부모가 해준 것이 너무 없어 작은 명예나마 아이에게 찾아주고 싶었다.”며 “아이의 희생이 사회에 모범이 되어 그로 인해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함께 사는 사회가 된다면 그 또한 바른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정차웅 군의 의롭고 아름다운 행동들이 미래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사자 지정에 대한 축하와 함께 아들을 잃은 슬픔에 대한 위로도 잊지 않았다.

한편, 의사자 증서를 받기 위해 안산시청을 방문한 아버지 정윤창 씨는 “의사자 지정을 위해 많이 노력해 준 안산시로 인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여러 가지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세월호와 민주주의’ 진상규명 강연회

파면 팔수록 커지는 의문… “왜 구하지 않았을까”

2014년 4월 16일. “침몰하는 세월호에 처음 도착한 해경 123정은 왜 고무정을 내린 후 기관실 선원 5명만 구했을까?”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1시간 넘는 시간동안 왜 선원을 포함한 구조세력 누구도 퇴선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수많은 뉴스가 보도됐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은 오히려 증폭되기만 했다. 지금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거리에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싸늘한 추위가 온 몸을 감싸던 11월, 카페 ‘피움’에서 ‘세월호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진상규명을 위한 강의가 열렸다. ‘구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첫 번째 강의는 박영대 서울대 세월호 연구팀장의 자세한 자료로 문을 열었다. 세월호 선내상황과 재판기록, 참사 시간별로 타임라인을 분석한 사실들은, 파면 팔수록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좋았음에도 왜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눈덩이처럼 커진 의문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근처에 있던 2천 톤 급 ‘둘라 에이스’ 호가 9시 18분에 사고 지점에 도착했고, 구명뗏목도 충분했으며, 당시 물결까지 잔잔했기 때문에 퇴선명령만 있었다면 승객 전원을 구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사실들을 정리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

니 구조과정 전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총합이었다.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선’이 곧 생존이라는 사실은 선원이나 해경 모두에게 기본적인 상식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세월호에 4백 명이 넘는 사람이 탑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누구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구조원의 경우 사고 현장에 도착해 아무도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았고, 한 명도 선내에 진입하지 않았으며, 먼저 구조된 사람들에게 세월호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았다. 이것은 개인의 실수나 무능과 상관없이 상식에 위배되는 이상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고 지점에 제일 먼저 도착한 해경123정이 한 일이라곤 고무정으로 기관실 선원 5명을 구조한 것이 전부다. 이때 선원들은 30분 동안 승객을 구조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조타실에 연락을 취하지도 않은 채 맥주를 마시며 갑판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세월호가 침몰하기 1시간여 동안 구조원이 퇴선지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다. 해경 함정에 있던 대공 마이크를 쓰거나, 세월호 조타실 방송설비를 이용해 안내방송을 할 수도 있었고, 안에 들어가 육성으로도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과정 전체에서 퇴선을 두 번씩이나 지시한 사람은 근처에 있던 ‘둘라 에이스’ 호 선장이 유일하다. 이 경우는 구조원 누구에게도 유의미한 시간대에 승객을 퇴선시키려는 의사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를 단순히 실수, 착각, 탐욕으로 설명할 수 없게 만든다.”

‘왜 안 구했냐’는 질문은 유착이나 관료주의, 민영화 등 부분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 국민적인 의지를 모은 진상규명 운동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왜 구하지 않았을까?’ 더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naver.com

1899년 설립된 **안산초등학교**

117년의 역사, **제자리를 되찾았다**

안산 근대 교육의 출발점

수암봉 자락 아래 위치한 안산초등학교(교장 정성조)는 백년이 훌쩍 넘은 역사를 간직한 경기도의 몇 안 되는 유서 깊은 학교다. 올해 3.1운동 기념식이 이곳에서 열렸을 정도로 안산 근대교육의 출발점이자 독립의지를 다질 수 있었던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안산초 역사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있었고, 이번에 이를 바로 잡는 계기가 마련됐다. 바로 학교 역사를 기록한 기념탑의 숫자와 개교기념일을 수정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12년 안산초등학교 동문회가 100주년 기념탑을 세울 당시, 개교일을 13년 늦춰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안산초동문회는 학생들의 졸업기수를 기준으로 기념탑을 세웠지만, 지역 주민들은 일제시대 일본인 교장이 부임한 시점을 개교일로 잡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나라가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안산동 주민들은 학문과 교육에 대한 열의가 강했다"

실제 안산초의 역사는 대한제국 말기인 1899년 안산군 공립소학교란 이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고종의 교육입국조서에 따라 전국에 세워진 50여개 근대식 교육기관 중 하나로 경기서남부 지역에 세워진 학교 중 가장 오래된 것.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1899년 황성신문에 실린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안산군수였던 남계술이 공립소학교를 세웠다는 기록이 나오며 교원 임명 소식도 있다. 이에 개교일을 1899년 9월로 수정하고, 100주년 기념탑 역시 113주년 기념탑으로 정정한 것이다.

이번 '역사 바로잡기'는 단순히 13년이라는 시간차를 바로 잡는 것이 아닌, 안산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학교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에 의해 세워진 학교냐, 지역 주민들의 의지로 세워진 학교냐를 가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산초 정성조 교장은 "안산초 역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안산 공교육의 역사도 달라집니다. 1989년에 세워진 전국 50개 학교 중 안산이 포함됐다면, 이것은 당시 안산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나라가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동 지역주민들이 학문과 교육에 대한 강한 열의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죠. 실제로 안산동은 한국전쟁으로 학교 건물이 사라졌을 때도 토막교실을 만들어 교육을 지속했을 정도로 배움의 의지가 강했던 곳이에요."

안산초 동문회의 이현광 사무총장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이번에 할 수 있어 한결 마음이 편하다."며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진작 이걸 밝혀주셨으면 100주년 기념탑을 10년 당겨서 했겠지만, 지금이라도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 후배들에게 영원히 남길 수 있게 됐으니 잘됐죠."라고 했다.

또한 윤용복 총무이사도 "이번에 기념탑을 수정하며 마음의 짐을 덜었다."며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이론을 제기해주셔서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아무 소리도 없었다면 그냥 흘러갔을 거 아니에요."라고 반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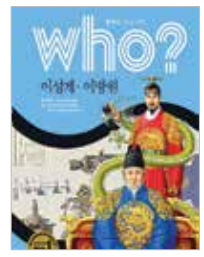
한국 근대교육의 시작을 열었던 안산초등학교는 한 세기를 훌쩍 넘긴 지금 현재도 안산 교육의 중심에 서 있다. 2011년 안산시 최초로 혁신학교로 지정된 후, 6년째 새로운 교육을 향한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naver.com

책 읽는 안산 / 11월 두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맞수: 조선 천재들의 싸움』

아동



Who? 이성계 · 이방원

저자 김모락 / **출판사** 다산어린이

이방원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학문과 무예 두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또한 누구보다 앞장서 조선의 건국에 큰 공을 세웠다. 훗날 왕의 자리를 위해 형제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지만 그는 강력한 왕권으로 혼란한 시기를 정리하고 새 나라의 기틀을 완성하였다.

청소년

한국사 맞수열전

저자 장용준 / **출판사** 북멘토

역사에는 언제나 결정적 타이밍을 함께 살다 간 맞수들이 있다.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화해하며 그들이 맞대결을 펼친 그때 그 현장에서 역사가 바뀐 셈이다. 이처럼 맞수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이 책은 독자가 양측의 입장을 살피면서 보다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한다.

성인

칼의 노래

저자 김훈 / **출판사** 문학동네

역사소설 『칼의 노래』는 420년 전 명장 이순신이 이끄는 임진왜란의 전장으로 초대한다. 조정의 권력투쟁 속에서 바람 앞 촛불 같던 조국의 운명을 홀홀단신으로 지키고자 했던 영웅 이순신의 활약이 충실히 그려진다. 책은 본문에 더해진 사료를 통해 소설 속에서 변형된 역사적 사실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자료제공 _ 중앙도서관

일하는 사람들의 도자공예모임 '토닥'

"연회비 만원… 누구나 와서 배울 수 있어요"

주말이면 많은 이들이 찾는 화랑유원지, 그곳에 '토닥' 작업실이 있다. '토닥'의 정식 명칭은 '일하는 사람들의 도자공예 모임'이다. OECD 가입국 평균 노동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일하는 우리나라, 특히 주야간 근무가 많은 산단 근로자들은 일하는 것 외에 취미활동 하나 즐기기도 쉽지 않다.

힘들게 일을 끝낸 후 술 한 잔 마시고 헤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만들어진 동아리가 어느새 10년을 훌쩍 넘었다. 이제 주말이면 아이를 동반한 가족 체험단도 많이 찾아오고,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도자기교실도 운영했다. 지난해부터는 매년 연말 회원들의 작품으로 전시회도 열고 있다. 올해 전시회 주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평화의 소녀상'이다.

이정희 회원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 9시에 퇴근을 하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작업실에 온다.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느냐고 묻는데, 흙을 만지다 보면 피로와 잡념이 사라지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토닥' 회원들은 서로 일하는 시간도 다르고 직업도 다양해 정해진 시간 없이 자유롭게 작업실을 드나들며 개인 작업에 몰두한다. 신입회원이 들어오면 운영위원이 짬짬이 지도를 해주고 자연스레 회원 간에 돈독한 친목도 쌓인다. 회원은 80여 명이나 되지만 교대근무자가 많아 작업실이 작아도 여유가 많다.

단원미술제 선정 작가전에 참여했던 이재용 운영위원은 "흙 만지고 도자기 만드는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화되었으면 한다. 일과 삶을 즐기며 여유롭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생기고 직접 그릇을 만들다 보면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지는 그릇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전시기간 : 12.19(월)~22(목) 안산문화예술의전당 3전시실
☎ 문의 : 010-3722-2460(토닥 전병락 회장)
송민아 기자_junseo1000@hanmail.net

'국경 없는 마을 – 꿈의 학교'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해 꿈을 만들어간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에는 '국경 없는 마을'이 있다. 안산역 건너편, 다른 동네와 별 다를 것 없는 소박한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골목골목마다 외국어 간판이 즐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역시 외국인이 많다.

이 마을에는 코시안(kosian, 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 또는 아시아 이주노동자의 자녀)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 자원봉사자들이 한곳에 어울려 북적대며 살고 있다. 때론 좌절도 하지만 다시 희망을 찾아가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

공동체 확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코시안에 대한 어른들의 차별이다. 강대국들의 문화나 형식은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면서 약소국가라 생각되면 문화든 사람이든 일단 차별부터 하고 보는 나쁜 버릇이 있으며, 또 이를 본받는 아이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안산교육지원청이 지원에 나섰고, YWCA가 주관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국경 없는 마을– 꿈의 학교'가 탄생했다.

지난 11월 12일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꿈을 만들어가는 '국경 없는 마을 문화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수업은 학생들이 뽑은 학생교감의 발표로 시작됐고, 5개 팀별로 나뉘어 진행된 수업 중 세계여행팀의 수업을 참관했다. '네팔을 알아보는 시간'이란 주제에 맞춰 네팔인이 직접 설명해 관심을 끌었고 더불어 문화체험을 함께 준비해 현실감 있는 수업으로 진행됐다.

'국경 없는 마을 – 꿈의 학교'는 지금까지 총 15회의 수업을 진행했다. 오는 12월 31일 졸업 예정이다. 이번 '꿈의 학교'가 다문화중심 도시인 안산의 자긍심으로 이어지며 다문화교육의 대표 기관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

김 선 명예기자_itsumo9011@naver.com

책방 '들락날락'

"함께 책 읽어요. 누구나 환영합니다"

안산 중앙역 뒤편에 작은 책방이 있다. 이름은 '들락날락'.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이름처럼 누구나 들락날락할 수 있다. 분위기는 차분하고 조용해서 책읽기에 딱 좋다. 작은 공간에 약 천권 정도의 책이 꽂혀 있으며, 장르는 소설부터 철학까지 다양하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정기간행물이나, 각종 행사 포스터, 캠페인 스티커 등이 진열돼 있다.

책방지킴이 유월(33세, 이동)씨는 "안산에도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캠페인이나 매체가 많아요. 관련된 리플릿(leaflet)이나 스티커, 카드 같은 것들을 책방에 오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직접 받아와요."라고 말했다.

들락날락은 도서관처럼 각자 앉아서 책을 읽기도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책모임을 만들기도 한다. 현재는 현대사, 페미니즘, 마르크스 등 다양한 책모임이 진행 중에 있다. 〈오월의 봄〉이나 〈갈무리〉같은 출판사의 책은 판매도 하고, 조용하고 작은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대여도 가능하다.

들락날락은 오로지 회원들의 정기후원금으로만 운영된다.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몇 명이 뜻을 모아 만들었으며, 처음부터 영리목적은 없었다.

유월 씨는 "여럿이 오셔서 한참 떠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전반적으로 아직 손님이 많지는 않아요. 망하지 않게 함께해주세요."라고 전했다.

☎ 문의 010-7387-1147
유가희 명예기자_425170@naver.com

은빛둥지 특별사진전 '황혼의 길손'

'배달민족'의 터전, 시베리아를 가다

시베리아의 풍경을 담은 작품 '동토 위의 낙원'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 동안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황혼의 길손' 사진전이 열렸다. '은빛둥지' 어르신들의 디지털 카메라 사진전시회는 지난 11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았다.

'은빛둥지'가 상록구 본오동에 둥지를 튼 지 어언 16년. 동네 노인들의 조그마한 컴퓨터 동아리는 이제 지역사회를 넘어, 한국노인들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며 행동하는, 노인사회단체로 성장했다. 특히 2005년 1년 과정으로 개설된 사진학습반이 인기다. 사진을 찍어본 적 없는 노인 20여 명이 모여 1년여 동안 전국 명산대천을 다니며 촬영했다. 그동안 찍은 작품 중 한두 작품씩 70여 점을 골랐다. 1년을 마무리하는 졸업식을 겸했다.

이번 사진전에는 '시베리아, 시베리아 특별전'이 마련됐다. '배달의 민족' 상고사의 터전인 시베리아를 탐사하며 찍은 사진들이다. 은빛둥지 라영수 원장은 "이번 시베리아 특별전은 한빛방송, 전북영상협회 등에서 다큐로 방송된 '사하공화국' 영상을 비롯해 7명 회원들의 사진 30점이 전시됐다."며 "1주일간의 촬영을 위해 3년간 경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상록구청 로비에 전시된 사진들을 보며 남녀노소 관객들은 다양한 삶이 투영된 작품 앞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동토 위 낙원'이라는 작품 앞에서 한참동안 서 있던 시민은 "아주 평화롭네요. 사진만 봐서는 우리나라 같기도 하고, 이런 풍경을 찍으려고 시베리아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요."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황혼의 길손' 사진전에는 매년 별도의 스튜디오를 설치, 현장에서 무료 영정사진을 촬영 · 제작해주는 노노봉사(老老奉仕)가 이뤄졌다. 매년 300명 이상 어르신들이 촬영하고 있으며, 사진전 개막식에서는 영정 증정식도 진행됐다.

'돌봄'이 필요한 보호대상 노인들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의 일을 찾아내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 사회의 자원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어르신들. 활동적인 여생을 살아가며 디지털시대의 노인상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이 사진전시회는 '디지털 에이징(Digital Ageing, 정보통신기술을 잘 사용하며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의 표상인 것. '은빛둥지' 어르신들은 11년 동안 전시회를 열어 오며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문제가 전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어두운 오늘날 '황혼의 길손' 사진전을 통해 한줄기 해결의 빛을 제시하고 있다.

☎ 문의 : 은빛둥지 www.4u2.co.kr (031-438-4088)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볼만한 전시

내 마음속에 있는 정서의 창을 열고 사물을 바라보자

마음의 창을 열고 수많은 사물을 공유하며 작업한 상록사진동호회 사진전이 '마음의 창'을 주제로 열린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정서의 창을 열고 사물을 바라보지 않으면 마음의 창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인간의 마음의 창은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창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마음의 창이 있고, 두 번째는 숨겨진 자아로 자신을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거나 볼 수 없는 마음의 창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만 우리 자신은 보지 못하는 마음의 창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지의 자아로 우리는 물론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창이라고 합니다.' –작가노트 중–

△ 전시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실(11월 25일~27일)

염부, 기억의 지리학

염부, 기억의 지리학'은 자우녕, 최정수 작가의 2인전으로, 산업화된 도시 공간이 품고 있던 개인의 기억, 집단의 기억을 현재의 모습에서 다시 바라보는 전시이다. 땅과 사람, 사람과 바다를 품고 있었던 경기 서해 연안 지역이 지금은 간척되고 매립되어 예전의 모습은 희미한 흔적들로만 남을 뿐이다. 그동안 예술가들은 이곳을 터전으로 삼아 뜨거운 태양과 바닷바람에 둘려 쌓여 염전 밭을 일구어왔던 삶의 여정을 대면하고 읽어내었다. 그러한 해석의 결과물들로, 설치조형, 영상, 텍스트, 드로잉, 아트 북 등으로 제시된다.

△ 전시 : 경기창작센터(11월 27일까지)

2016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 2인전

홍란 작가의 이번 전시 작은 타이틀은 '슬로우 폴(SLOW FALL)' 이다. 작년과는 다른 시점에서 보고 해석한 다양한 작업들을 보여줄 것이다. 작가는 수많은 욕망이 뒤엉킨 현실 속에서의 '욕망 표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안에서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연관성을 페인팅과 설치로 표현한다. 현실과 이상에서 오는 괴리감을 극복하고 작업을 통해 진정한 가치의 변화를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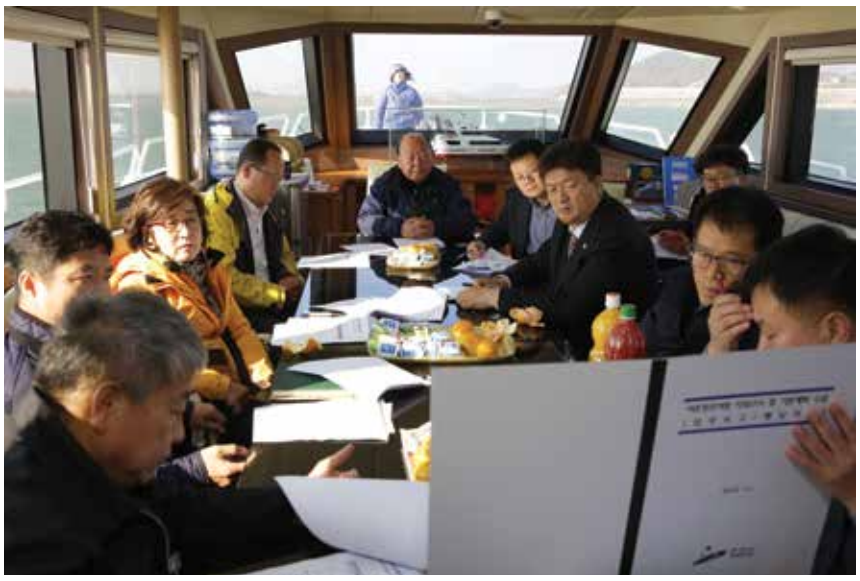
최수연 작가의 전시 주제는 '퇴(頹)'이다. 한국이나 중국의 고전 영화를 통해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여인들의 극적인 순간을 묘사한다.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비극 앞에서 엄숙해지기도 하고 무감각해지기도 하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다른 하나의 갈래는 천국이나 지옥, 권선징악 등 관념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것들이 재현되는 양상을 묘사한 작품이다. 누구도 본 적 없는 것들이기에 재현되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동원되고, 기술적인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고,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기도 하는데, 이런 다양한 양상을 회화로 옮긴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 전시 : 단원미술관(12월 5일까지)

☎ 문 의 : 상록사진동호회(010-3043-4223)
경기창작센터(032-890-4826) 단원미술관(031-481-0503)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어업지도선 '안산바다호' 점검… "해양생태도시위해 기여해야"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8일 안산바다호에서 시 대부해양관광본부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취항을 앞둔 어업지도선 '안산 바다호'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홍순목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8일 탄도항을 방문, 이 곳에서 오는 10일 취항식을 가질 어업지도선 안산 바다호에 승선해 관리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대부해양관광본부의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안산 바다호는 22명이 승선 가능한 67톤급 선박으로 최대속력 21노트(시속 39㎞/h)와 자동항법장치, 전자해도표시 시스템 등을 자랑하며, 지난 11월 10일 출항식을 마쳤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선박 내부를 둘러보면서 새로 건조된 안산 바다호 성능과 향후 역할에 대해 기대를 드러낸 뒤 운항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부도 생태 숲 확충 계획과 어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보고 등 시 대부해양관광본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사업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홍순목 위원장은 "대부도 어민들과 시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 어업지도선 '안산 바다호'가 수산자원 보호와 해난사고 예방 업무 등 본연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안산시가 해양생태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

어린이보호구역 민원 해결 위해 현장 활동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왼쪽 두번째)이 8일 의회에 접수된 민원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민근 의장은 8일 안산시 교통정책과 및 단원구 경제교통과 관계자들과 단원구 화정천동로 270 일원을 방문해 현장에서 민원인 등 주민들을 만나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이 일대 주민 330여 명은 해당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빚어지고 있는 과속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이 곳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신호등 및 과속방지턱 설치, 주정차 단속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현장에서 이 의장은 주민들의 의견이 시 측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한편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며 부서 관계자들과 해결책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신호등 설치의 경우 시 교통정책과가 내년 1~2월 중 단원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원구청 경제교통과가 단속 현수막을 설치해 계도를 선행하기로 했고,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련해서는 당장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도로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속도 제한 도색을 실시해 경과를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제2차 정례회 대비 합동 워크숍 개최

"내실있는 심의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전북 무주군에서 정례회 대비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안산시의회가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의원들의 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동안 무주군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양 교육 및 의원전체회의 등으로 꾸며진 합동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원들의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의회 현안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첫날인 10일에는 양내윤 감정경영연구원 원장과 박용진 지방자치의정연구소 대표가 각각 청렴 인성 및 지방재정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실시한 데 이어 의원 전체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회 홍보영상 시연, 각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 보고 등의 안건을 협의했다.

11일에는 장현순 한국심리상담전문학회 전임교수의 사군자기질 리더십 강의와 의회 구성원들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덕유산 등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민근 의장은 "다가오는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안건들이 다수 다뤄지는 만큼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공을 향해! 화합을 위해!”

안산은 축구의 도시.
100개가 넘는 클럽에서
3천여 명의 동호인들이 밤낮으로 모입니다.
푸른 잔디 위에 공 하나 던져놓고 추위도 잊은 채,
나이도 상관없이 힘차게 달립니다.
19일 토요일 오전 성호운동장의 축구 열기는
바로 ‘하나 되는 안산’입니다.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독거어르신 적극 지원

“답답한 사정… 여기에 말하세요” 이야기함 설치

안산시는 전체 75만 인구 중 약 1%가 독거노인으로, 외로움과 삶의 고단함으로 인한 자살사고가 증가할 위험성이 높다. 독거노인은 가족동거노인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안산시자살예방센터는 독거노인 밀집 지역인 상록구 팔곡동 주공아파트 단지와 단원구 선부동 군자13단지 아파트에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는 이야기함을 설치했다. 통 · 반장이 중심이 된 ‘생명사랑지킴이’들이 주기적으로 이야기함을 점검, 사연을 적은 어르신들을 안산시자살예방센터로 연결하고, 센터는 정서적 · 사회적 지원 상담을 포함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이번 이야기함 설치는 독거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자살예방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사랑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팔곡동 · 선부동 아파트 관리소와 보건기관, 농수산물도매센터와 자원봉사단체가 안산시자살예방센터와 협약을 맺었으며, 찾아가는 마음건강검진서비스와 생명사랑 화분 가꾸기 등을 통해 어르신들께 삶의 기력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안산시자살예방센터는 지역주민의 자살예방 인식 향상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기대하며 자살 고위험군을 찾아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자살사고 감소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문 의 : 안산시 자살예방센터(031-418-0123) 백미란 명예기자_whity218@naver

칼럼

대부도 에코시티를 향한 또 한걸음

김 재 덕
정책연구팀장(경영학박사)
(재)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최근 안산시는 2018년 말까지 대부도 방아머리 일원에 에너지타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LNG 위성기지와 연료전지발전소, 카본제로센터와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등을 갖추게 되는 이 에너지타운은 향후 대부도를 에코시티(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대부도의 생태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 이익은 주민들에게 환원돼야 ”

이미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미래를 염두에 두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고자 하는 사례는 중국이 미래도시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텐진 스마트 에코시티이다.

이곳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접목하여 주거와 환경문제의 해결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텐진 에코시티에는 지정학적인 특성에 따라 과학기술, 에니메이션 산업, 3D 영화 제작, 에코산업, IT산업 등 다섯 개의 산업파크가 조성되고 있다. 전체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싱(中新)텐진생태성관리위원회는 이들 파크와 주거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에너지절약형 도시설계를 진행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계 굴지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텐진 에코시티에 대해 무원조 · 무징수의 조세제도 도입, 자유외화 결제, 자체적인 심사 · 허가 확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부동산 정책 등을 도입하고 있다. 버스는 모두 전기차로 대체하며 대중교통은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오수와 우수에 대한 재활용 시설을 만들고 수돗물은 마실수 있도록 엄격하게 국가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도 내세우고 있다.

[유엔미래보고서 2050]에 따르면, 텐진 에코시티는 ▲사용되는 에너지의 20%를 신재생 태양광 및 지열에서 발전 ▲사용되는 물의 50%는 해수 담수화 및 오수 재활용으로 충당 ▲주택의 20%는 공개적으로 보조금 지급.

안산시는 올해 초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에너지 비전 2030’를 선포하고,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상을 밝히는 등 미래의 에코시티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대부도의 에너지타운 조성계획은 이러한 비전이 선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 실천적 대안으로 가시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에코시티의 건설은 에너지타운 등 시설적인 측면이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원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텐진의 에코시티와 같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실행기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엄격하고 강제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부도가 에너지자립섬, 카본제로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환경,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실행계획을 모색하고, 지속가능 발전 차원에서 이를 위한 지역계획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독자 기고

나는 그동안 얼마나 남을 위한 일을 했을까

‘빠아~앙 빵빵! 끼이익 끽…’

장롱면허를 가지고 밖에 나갔던 얼마 전,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앞 사거리 신호 앞에서 시동이 꺼지며 차가 멈춰 서버렸다. 유턴을 하려던 내가 방심한 사이 한번에 차를 돌리지 못해 가로로 길게 서 버렸던 것이다. 직진하던 대형 화물트럭이 갑자기 급정거를 함과 동시에 놀란 운전자들은 손가락질과 함께 소리를 질러댔고, 일순간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 그 짧은 순간에 오만가지 생각이 영화 필름처럼 촤르르륵 스쳐 지나며 인터넷에 올라오는 ‘김여사의 외출’이라는 사진과 글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어머머… 내가 지금 그 꼴이 될줄이야’ 짧은 순간 식은땀이 흐른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반대편 차선에서 빠르게 주행하는 차들 때문에 후진할 수도 없었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순간 내 차 앞에서 대형 트럭이 급정거를 했다. 그리고는 기사님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찾아온 구세주였다. 그동안 매일 대형 트럭은 도로위의 무법자, 혹은 난폭 운전의 대명사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치 흑기사처럼 차에서 내려 교통정리를 해주면서 내 차를 빼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었다.

죽을 죄를 지은 표정으로 차 안에서 보니 그 기사님의 수신호에 따라 급정거를 하던 차들도 줄어들고 내 차 옆으로 죽 늘어서며 막혀있던 차들 역시 하나 둘씩 빠지면서 도로가 대충 정리됐다.

드디어 10년 같은 시간이 지나 유턴을 할 수 있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길래 차를 돌려 길가에 세운 뒤 감사 인사를 하려고 운전석 문을 열자 트럭 기사님은 잽싸게 다가와 빨리 들어가라고 손짓을 하는것이었다. “지금 그런 인사를 나눌 상황이 아니고 빨리 차를 빼서 가는게 안전하다”며 소리를 쳤다. 아, 그러고 보니 그곳은 도로 위 한복판 아닌가. 결국 마음만 감사한 채 차를 몰아 갈 수밖에 없었다. 백미러로 보니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변의 차들이 쭉쭉 빠지고 있었다.

“휴~우… 나는 그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마운 일을 얼마나 하고 살았을까…”

오가는 차량들에 열심히 수신호를 보내는 그 고마운 트럭기사님을 바라보며 오만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앞으로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남도 더 도와가며 이해하며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 **권희숙**(단원구 단원구 선부광장북로)

안산시에 하고 싶은 말! 말! 말!

안산명화극장은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일터인 문화공간입니다. 제가 들은 바, 대다수의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도산위험에 처한다고 들었습니다. 노인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문화공간은 줄어들어 소외되어 가고 있는데 안산에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안산명화극장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산명화극장은 경기도 유일의 실버 영화관으로 365일 추억의 영화를 저렴한 가격으로 상영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실버영화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한 인건비 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사회에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오늘 오후에 그린빌9단지부터 월피동까지 연결되 있는 산책로에서 걷기 운동하고 있는 중 뱀이 나타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가면서도 풀이 키 만큼 자란걸보면서 불안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앞쪽에서 뱀이 길을 가로질러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운동하기 딱 좋은 곳인데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산천을 비롯한 화정천, 신길2천, 건건천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뱀이나 양서류, 어류, 조류 등 각종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뱀이 서식한다는 것은 생태계가 복원됐다는 반증이기도 하여 반가운 소식이나 뱀의 출현으로 시민들이 당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안내표지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고수부지 내 풀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걷고 싶은 하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산시 건설과

저는 어머님이 치매환자이십니다.상록수보건소와 안산시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해서 행복한 시간 속에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매년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환자와 인지장애환자가 늘어나 가족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환자를 돌보고 치유해 갈 수 있도록 치매환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예산을 늘려 주십시오.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행복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2016년 신규사업으로 실시된 치매어르신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지지 프로그램과 인지재활프로그램은 대상자분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진행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어르신과 가족 모두 웃음도 많아지시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도 엿 볼 수 있었습니다. 치매프로그램을 통해 귀하께서 행복함과 좋은 추억이 되셨다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향후 상록수 · 단원보건소에서는 보다 많은 치매환자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치매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시민의 의견을 크게 듣겠습니다

시장에 바란다 https://mayor.iansan.net
사람중심 이야기 마당(매월) https://sotong.iansan.net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동 방문(월 2회)
안산드림TV http://ansandream.tv
시민제안 http://idea.iansan.net

세월호 추모시설, 안산시민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4·16 안전공원 시민토론회 참여자 모집

배경 및 취지

세월호 추모시설인 (가칭)4·16안전공원 조성을 위해 "4·16세월호참사 안산시 추모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초기단계부터 시설입지와 조성방향 등에 대한 각계 각층의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 참여할 안산시민기획단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산시민기획단 공개모집

모집인원 200명(참여신청자 중 200명 선발) 대 상 20대 이상 안산시민 누구나
신청기간 2016. 11. 21.(월) ~ 11.30.(수)
신청방법 온라인 안산시 홈페이지(http://www.iansan.net)「새소식란」 신청
오프라인 각 동주민센터 서면 접수, 전화접수(☎481-3314~8)

토론회 개요

일 시 2016. 12. 10.(토) 14:00 ~ 18:00
장 소 안산시청 대회의실
토론참여자 안산시민기획단 250명 (사전모집 고등학생 50명 포함)
주 제 416안전공원(세월호 추모시설) 조성 방안 의견 나누기
진행방법 참여자 원탁토론 및 의견 발표

주최 4·16세월호참사 안산시 추모사업 협의회 주관 한국리서치

2016 시정소식지 만족도 설문조사

기간: 2016.11.9~11.28 (20일간)

※ 설문에 응해주신 분 중 30분을 추첨해서 기프티콘을 발송해드립니다.
상품발송을 위한 핸드폰 번호를 꼭 기재해주세요.

○ **안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세요!**
시청 홈페이지(http://www.iansan.net) 접속 => 우측 배너클릭

○ **e-브라보안산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https://www.bravoansan.net) 접속 => 우측 배너클릭

○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안산시 홈페이지=> 시정안내=> 시정소식=> 새소식 또는 공지사항에서 설문지를 다운받으신 후 bravo@iansan.net으로 보내주세요

소사-원시 복선전철 안산시구간 역명 선호도 설문조사

소사-원시 복선전철 안산시 구간 역명 제정을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16. 11. 14. ~ 2016. 12. 2.(3주간) ○ **조사방법 :** 홈페이지 배너(www.iansan.net)

고시역명(가칭)	석수골역	선부역	원곡역	원시역
제안 역명	석수골역 달미역 서안산역	선부역 선부광장역	안산스마트허브역 시우역	원시역 별망성역